

변경 드라이브로 연변의 아름다운 가을을 느껴보다

‘흥기 운전 · 연변 관광’ 가장 아름다운 변경 관광 차대 G331 국도 여행



11일부터 13일까지 연변조선족 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관광국에서 주최한 ‘흥기 운전 · 연변 관광’ 가장 아름다운 변경 관광 차대는 G331 국도를 따라 연변의 아름다운 가을을 느껴보았다.

문화관광 시장의 내포를 풍부히 하고 종합적이면서도 립체적인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 새 중국 창건 75 주년의 경축 분위기 속에서 연변에서는 ‘가을 정취 · 연변에서의 만남’을 주제로 ‘금구은십(金九銀十)’ 문화관광 계열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드라이브 관광 행사는 그중의 한계 내용이다.

행사는 A, B 두 코스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흥기 브랜드 신에너지차 20 대로 구성된 44 명의 드라이브팀이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왕흥과 업계내 유명 인사들도 초청되어 체험에 참가했다.

가을의 G331 국도는 경치가 아름다워 드라이브 애호가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국도’로도 불린다.

A 코스는 내두산촌으로부터 홍석봉 - 이도백하 - 대화대강 - 군화산 - 상천촌 - 광동촌 - 망강각 - 비암산온천고촌락 - 중국조선족 민속원까지였다.

관광 블로거 송문호는 “연변의 초청을 받아 안도의 홍석봉풍경구에서 절벽 커피를 마시고 룡정의 망강각에서 조선을 바라보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들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연변의 자연풍광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했다.

절강성에서 온 개인블로거 변박문은 장춘시에서 대학시절을 보냈다. 그때 그는 김치와 조선족 특색 음식을

특히 좋아했는데 조선족 노래와 춤도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으로 네티즌들에게 연변의 인문환경에 대해 열정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B 코스는 동방 제1촌에서 출발하여 두만강류역문화관 - 오대징조각광장 - 룡호각 - 도문통상구 - 백년부락 - 랑전백제 - 연변박물관까지였다.

장춘에서 온 여행작가이자 유명한 블로거인 중원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깨끗한 조선족 민박을 통해 변경마을의 안정과 단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10월 13일 오후, 연길에 도착한 드라이브 차대는 공룡왕국, 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 왕흥벽 등 핫플레이스들을 거쳐 주정무쎈터 앞에 모여 연길의 청춘 활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최근년간 연변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행동을 전개, 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 등 여러 면에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연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좋은 문화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연변의 생태, 민속과 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연변의 인기와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 김영하기자



연길 거리에 이색적인 문화관광봉사십터 등장

최근 연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길거리에서 독특한 풍격의 문화관광봉사십터를 발견했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이 특수한 십터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색적인 연길 관광을 즐기고 있다.

열점도시 중점풍경구의 효과를 위해 일전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관광국은 연길시 부분적 도시관광집산지, 주내 중점 A 급 관광풍경구에 문화관광봉사십터를 신설했다.

십터에는 의자가 마련되었으며 연변 관광지도, 연변문화관광 공중계정, 웨이보계정, 틱톡계정의 QR코드가 게시되어있다. 제1진 십터는 연길고속철역, 중국조선족민속원, 아리랑광장 등 곳에 설치됐는데 향후 연길 인터넷 인기 왕흥벽, 연길공항, 연길 서시장, 훈춘 방천풍경구 등 곳에도 속속 설치할 예정이다.

/ 연변라지오 TV 넷



중국 - 웰남 첫 크로스보더 관광협력구 정식 운영 시작



▲ 중국과 웰남 국경에 위치한 덕천(반족) 폭포의 크로스보더 관광협력구 풍경

중국과 웰남 국경에 위치한 덕천(반족) 폭포 크로스보더(跨境) 관광협력구가 지난 15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크로스보더 관광협력구이다. 협력구내 중국 덕천폭포는 웰남 반족폭포와 련결되어있는데 기이한 카르스트지형과 뛰어난 자연광경을 자랑하며 아시아 최대 국경 폭포를 형성하고 있다.

협력구의 우리 나라 지역 풍경구에는 랑국의 문화적 요소가 풍부한 ‘중국 - 웰남 거리’ 및 ‘중국 - 웰남 국경거리’를 조성했으며 웰남지역에서는 웰남 특색 음식과 민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협력구가 운영되면서 관광객들은 아시아 최대 국경 폭포의 장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 지역 풍경구에서 웰남 관광객들은 특색 있는 장족의 전통춤, 즐

기고 경쾌한 산가(山歌·중국 농촌 전통 가요), 오색령통한 수곡 등 광서지역 사람들의 깊은 열정을 느낄 수 있다.

협력구는 지난 2015년 중국 - 웰남 랑국이 <중국정부와 웰남정부간 덕천(반족) 폭포 관광자원 보호·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중국 광서좡족자치구와 웰남 까오방성이 공동으로 건설,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랑측은 협정에 따라 덕천(반족) 폭포풍경구에 각각 2평방키로메터씩 크로스보더 관광협력구를 설치해 지난해 9월 15일부터 시범 운영했다.

광서좡족자치구정부 부주석 호범은 “협력구의 정식 운영은 랑국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랑국 변경지역의 심도 있는 협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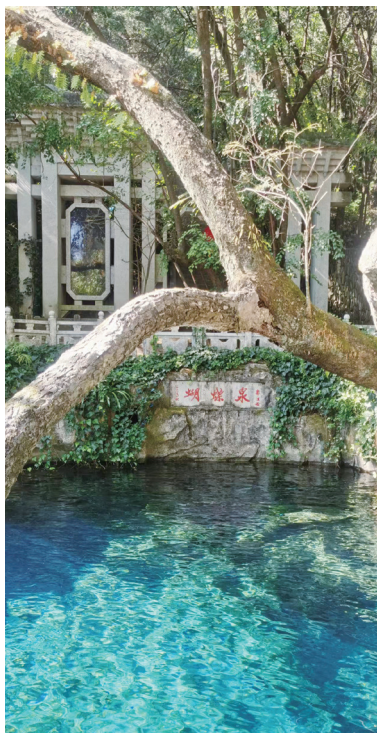
/ 신화사

여행수기

운남 대리 여행기 (2)

나비가 날아드는 샘물터

◎ 태승호



운남 대리에는 ‘나비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나비샘(蝴蝶泉)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는데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의 머리속에는 무한한 상상이 내려왔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 나비가 나풀나풀 춤추는 선경일까, 아니면 샘물이 졸졸 흐르는 무릉도원일까? 지난해 11월 9일,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안해와 함께 나비샘터로 떠났다.

오전 9시 30분이 되자 예약한 택시가 민박집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는 간단한 행장을 갖추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나는 금금증을 못이겨 운전사한테 샘터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음씨 착한 운전사도 친절환 태도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때면 수천수만마리의 나비들이 사면팔방에서 샘물가에 날아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어지면서 춤을 추는 기이한 광경을 이룬다고 한다.

나비샘 아래에는 오룡지(五龙池)라는 독특한 유람지가 있는데 다섯줄기의 샘물이 다섯마리의 룡머리에서 솟구쳐나오면서 마치 다섯 룡이 물을 토하는 것만 같은 경경을 연출한다. 이곳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산간의 작은 못인데 접하는 데 의하면 다섯마리의 신통(神龍)이 살고 있다고 해서 오룡지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튕기고 샘물이 맑고 투명하여 당나라 시인 왕유의 명시구 “맑은 샘물이 바위 위에서 졸졸 흐른다(清泉石上流)”는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었다.

나비샘은 대리 창산 제1봉인 운농봉(云弄峰) 신마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나비샘공원 안에 있는데 대리고성에서 27키로메터 떨어진 데 대리고성에서 무저담(无底潭)인데 처량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깃들어있었다. 한쌍의 총성스럽고 절개가 굳은 련인이 무저담에 뛰어들어 채색나비로 변하였다고 하여 나비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전설이 있다. 나비샘은 또한 1959년에 제작한 유명한 영화 <다섯금화(五朵金花)>의 외경 촬영지이기도 했다.

택시가 40분 정도 달려서야 우리는 나비샘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로 들어가는 돌다리를 건너면서 다리 밑을 내려다 보니 맑은 시내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오솔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노라니 길가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혹되어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청록색의 나무, 알록달록한 꽃, 즐거운 세소리가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었다. 공기 속에 가득차있는 꽃향기와 진흙의 향기를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시니 심정이 한결 유쾌했다.

매표구에서 15분 정도 걸어서야 마침내 나비샘에 이르렀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샘터는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네모난 모양에 면적은 50평방메터이고 물의 깊이는 6메터라고 한다. 샘터 주위는 대리석 란간으로 막혀있었고 샘물은 거울처럼 맑아서 파란 색깔을 띠고 있었다. 샘터 옆에는 높고 큰 고목이 가로놓여있는데 ‘나비나무’라고 한다. 나비나무는 마치 청룡이 샘터에 가로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샘터 정면의 대리석에는 ‘나비샘’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1961년에 광발악이 쓴 것이라고 한다.

해마다 음력 4월 15일이면 성대한 나비축제 행사를 거행하는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데 의하면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손을 씻는 것은 벼슬운을 대표하고 두번째로 손을 씻는 것은 재물운을 대표하며 세번째로 손을 씻는 것은 연분운을 대표한다고 한다. 아마 이러한 풍속은 바이족 인민들의 룡에 대한 숭배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구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비샘 주위를 돌아보니 송림, 야자숲, 차숲, 두견림 등 현지의 다양한 특유한 종류의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유명한 자연경치중의 하나인 ‘부부나무’였다. 수백년간 자랐다는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나란히 자리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붙어 마치 한쌍의 금슬 좋은 부부와 같다고 해서 ‘부부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나비샘을 떠나서 아래로 이어져 있는 오솔길을 따라 백여메터 걸어가니 크지 않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 호수는 ‘련인호(情人湖)’라고 하는데 호수가 주변은 룡목이 우거지고 꽃향기가 물씬 풍겨나오고 있었다. 물은 어찌나 맑은지 밑바닥의 풀들이 보였는데 네모난 모양에 면적은 비취진 수려한 그림자까지 보였다. 수면에서 금붕어와 백조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유유자적 해업을 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는 호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비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박물관은 목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나비박물관의 하나로서 전국 각지에서 온 나비표본이 도합 11과에 400여개 품종, 4만 5,000여마리의 단체나비를 소장,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